

대기업집단과 한국의 기업 동학*

조강철, Philippe Aghion(LSE), Sergei Guriev(Sciences Po)

* 영문 논문 제목: Chaebols and Firm Dynamics in Korea

(연구 배경)

-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투자 주도 성장(investment-based growth)에서 혁신 주도 성장(innovation-based growth)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
 - 개발도상국은 초기에 주로 선진기술 수입, 자본투자를 통해 성장하나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 도약을 위해 숙련인력 양성, 신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, 경쟁환경 조성 등이 필요
 - 대기업집단(이하 재벌로 칭함)은 대규모 투자, 수출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외환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재벌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
 - 기업의 진입장벽 완화, 재벌기업에 대한 암묵적 지급보증 해소, 재벌 구조조정 등 외환위기 이후의 개혁 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여 지식 중심 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여
 - 우리나라의 미국 특허 출원건수는 1992년에는 독일의 1/8, 2003년에는 56% 수준이었으나 2012년부터 독일에 앞서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독일보다 출원건수가 30% 많았음*

* 미국 특허청(US Patents and Trademarks Office) 통계

⇒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 단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전환을 엄밀하게 검증

문의처: 조강철 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 부연구위원 (☎ 5445)

※ 이 연구내용은 집필자들의 개인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따라서 본 논문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분석 모형)

□ 1992~2003년*중 통계청 '광업제조업조사' 미시자료를 토대로 산업별, 연도별 변수를 생성하여 이중차분(difference-in-differences) 회귀분석을 실시

* 외환위기 이후 개혁 정책 이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석 대상 기간을 2003년까지로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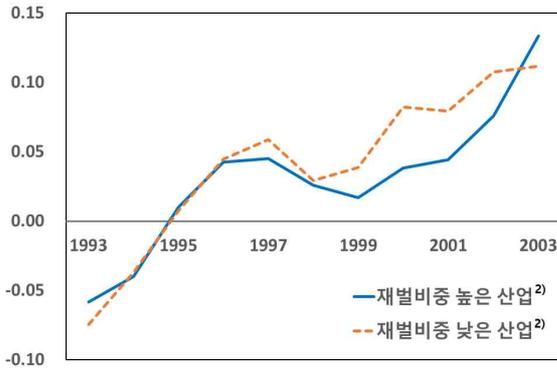
- 각 연도별 자산총액 기준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재별기업으로 정의
- 주요 설명변수로는 ① 외환위기 이후 더미 변수와 ② 외환위기 이전 기간중 각 산업별 재별기업의 매출액 비중 평균과 외환위기 이후 더미 변수의 교차항을 포함
- 종속변수는 총요소생산성(total factor productivity), 노동생산성, 진입·퇴출 기업의 매출액 비중, 고용, 자본량, 신규 특허 건수, 이윤율(markup)을 사용
- 회귀분석은 각 산업·연도별로 ① 전체 기업, ② 재별기업, ③ 재별기업이 존재했던 산업 내 비재별기업, ④ 재별기업이 없었던 산업 내 비재별기업에 대해 시행

(분석 결과 및 시사점)

□ 외환위기 이전 재별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산업(외환위기 이후 개혁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은 산업)에서 외환위기 이후에 비재별기업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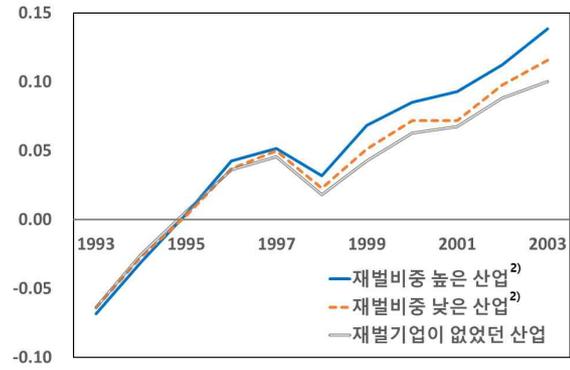
- 외환위기 이전 재별 집중도가 높았던 산업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재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더욱 크게 상승한 반면 재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는 변화가 없었음
 - 외환위기 이전에는 재별기업과 비재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이 산업 내 재별 비중과 관계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음
 - 외환위기 이후 비재별기업의 총요소생산성 상승폭은 위기 이전 재별 비중이 높을수록 컸으나 재별기업의 경우 산업 내 재별 비중에 따른 격차가 유의하지 않았음

산업별 재벌기업의 중요소생산성¹⁾



- 주: 1) 산업별 재벌기업의 중요소생산성 평균을 계산한 후 로그를 취한 값으로 1993~97년 평균=0으로 표준화
 2) 재벌기업의 매출액 비중 평균(1992~97년)이 중간값(0.2)보다 높거나 낮은 산업

산업별 비재벌기업의 중요소생산성¹⁾



- 주: 1) 산업별 비재벌기업의 중요소생산성 평균을 계산한 후 로그를 취한 값으로 1993~97년 평균=0으로 표준화
 2) 재벌기업의 매출액 비중 평균(1992~97년)이 중간값(0.2)보다 높거나 낮은 산업

- 노동생산성의 경우 재벌 및 비재벌기업 모두 외환위기 이후 상승하였으나 외환위기 이전 재벌 집중도가 높았던 산업에서 상승폭이 더 컸음
 - 모든 산업에서 외환위기 이후 비재벌기업의 진입과 신규 특허 건수가 증가
 - 재벌기업의 이윤율이 외환위기 이후 하락했으며 특히 위기 이전 재벌 매출액 비중이 높았던 산업에서 그 추세가 더욱 뚜렷하였음
- 생산성, 진입, 신규 특허 건수 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 혁신의 역할이 중요해졌음을 실증적으로 뒷받침
- 특히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경제의 질적 수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기존 연구*의 주장과도 부합

* Daron Acemoglu, Philippe Aghion, and Fabrizio Zilibotti (2006) "Distance to Frontier, Selection, and Economic Growth", *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*.